고은 불교대하소설

► 121 ◄

이미 바다밑의 지층에는 변위(變位)가 생겼다. 바다 위의 파도가 한 줄기로 솟아올라 마치 길고 긴 짐승이 내달리는 것 같은 파도의 행렬을 보였을 때 바다밑 지층의 지진파(地震波)는 그것이 지나가는 양쪽을 현저히 어긋나게 한 것이다.

무욕도 일대의 연안이 사나운 물살 때문에 그 섬과 해안지역을 두절시킨 것이나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지나가는 미진(微震)이나 상당한 지면 진동으로 확대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아주 노련한 어부들조차 이 일대의 연안을 피하는 처지였다.

그런 무욕도에 아무것도 모르고 건너온 인담이 그 뒤로 들려오는 이런 일 자체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까지 잘 지내온 것이었다.

하지만 몇해 전 지진이 한 차례 이 섬 전체를 요동친 적이 있었다. 그 뒤로 심심풀이처럼 한 두번 미진이 있었다.

어찌 사바세계가 온전할 것인가.

어찌 사바세계와 온 우주 3천대천세계가 생겨서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 사바세계에서 사는 목숨인들 그것이 지극히 존귀한 한편으로 얼마나 하잘 나위 없는 검불이거나 티끌이 아닐 것인가.

겁(劫)의 끄트머리에 이르러 그 무엇인들 그 귀신까지도 남아있을 까닭이 없으리.

굳이 이 도량을 에그머니나 하고 질겁을 해서 떠나는 그 방정이 어찌 도인의 일일 것인가.

그저 살 때까지 살되, 그저 닦을 때까지 닦다 죽게되면 죽으리.

이 집안의 도리가 무엇이던고. 태어나는 일, 사는 일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집착을 헌 미투리 한짝으로 내버릴 노릇 아니던가.

그러나 죽음이란 어디로 가는 것이지

미 진

아주 이 세상에서 없어짐도 아니다.

멸겁(滅劫)이란 또 다른 겁의 세상을 위한 한바탕의 노래잔치 아닌가.

그런줄 알았으면 되지… 그럭저럭 이 도량을 도솔천으로 삼건 서방정토로 삼건 제 할 노릇으로 한번 살아보리.

이왕이면 깔깔 웃어도 좋아.

징징 짜거나 벌벌 떨거나 하는 것보다는 식은 죽처럼 히죽이 웃어도 좋아.

이런 생각이 인담이나 그밖의 수행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젖어든 평상심의 무심(無心) 그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찌 누룩이 가만히 있겠는가. 장차 술이 되어 그것을 입에 대는 동안 알딸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술에 취하는 대신 도에 실컷 취해서 그 취함과 깨어남이 둘이 아닌 경지 그것이 오죽이나 좋은 일이겠는가.

취함이 곧 미혹(迷惑)의 세계라면 그 취함에서 깨어남이 각성(覺醒)이 아니겠는가.

자아 잔소리 따위 접어두고 마치 이 세세생생 이전 처음으로 출현한 부처(威音已前 威音王佛)라도 되어보리. 그리하여 일체의 사량(思量)과 분별따위 칼로 잘라내어 온전히 무(無)가 되어버리는 일, 부모가 아직 태어나기 전(父母未生前)의 그 도리, 공겁이 있기 전(空劫以前)의 그 새하얀 공(空)에 너울너울 춤추어 놀아보리.

아마도 이런 눈부신 그림이라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왔다면 그야말로 큰 도인들의 경지에 틀림없으리라. 그런 경지

어찌 사바세계가 온전할 것인가

다시 지진의 미동이 시작됐다

이 세상의 무상을 가르치는 것처럼…

에 다가가려는 정성만이라도 도인의 경지가 아닐 수 없으리라. 인담과 우녀는 그런 경지였는지 모른다.

물방울 하나도 남기지 말라(不存涓滴)

언젠가 우녀가 바위 벼랑을 때리고 부서지는 파도의 힘찬 포말들을 보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니와 지금의 우녀는 지진이 한 차례 지나간 뒤 남아있는 미진에 의해 섬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도 망연자실로 그 바위벼랑 쪽에 가서 서 있었다.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저 아래 사나운 소용돌이의 파도 속으로 추락해서 온데간데 없이 될 터인데도 그는 그런 두려움도 감추지 못한 백치가 되어버린 것인가.

아직 무욕도 일대의 바다나 해안은 그다지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

이런 국지적인 지진이 무리를 이루어 일어나는 진원(震源)은 매우 얕아서 도리어 그 때문에 그 부근 일대에서는 적지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그런 군발지진(群發地震)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규칙적이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지진의 강도를 높였다가 차츰 약화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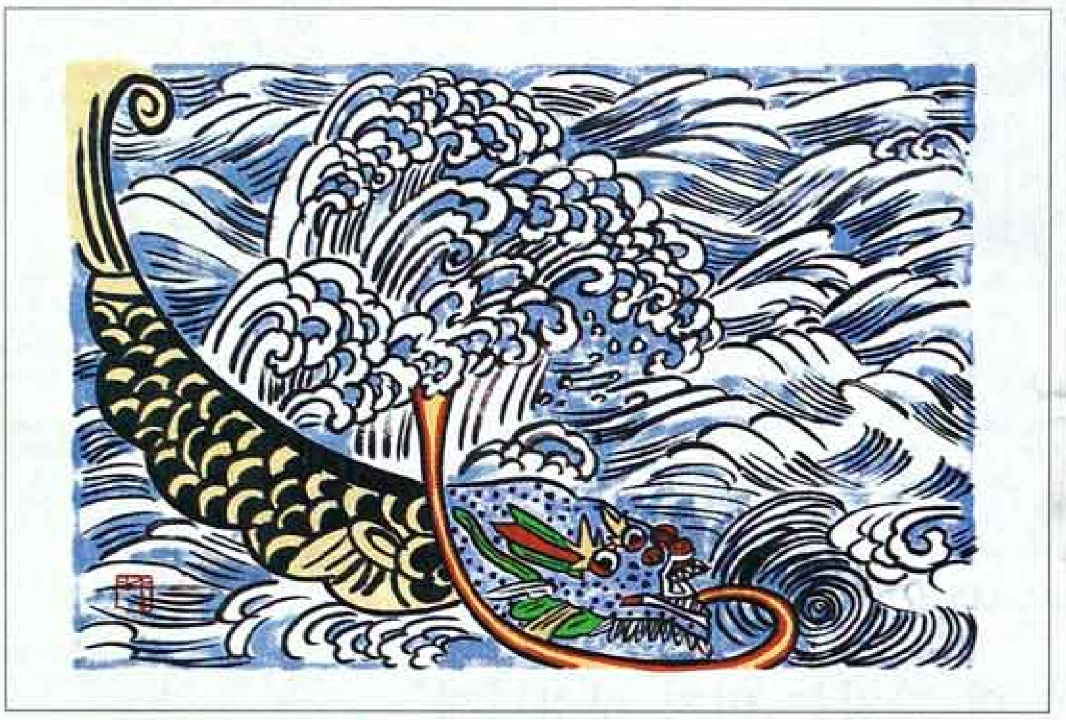
다만 이런 국지적인 작은 규모의 지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 그대로 군발지진인지 앞으로 있을 커다란 지진의 전조(前兆)인지 가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우녀는 벼랑의 시퍼런 파도의 소용돌이와 그 폭발음에 가까운 파도 부딪치는 파열음 속에 한동안 잠겨 있었다.

거센 파도 한 줄기가 다른 파도들을 따돌린 나머지 이 벼랑 밑의 협곡으로 혼자 들어와 벼랑의 암벽을 온몸으로 부딪쳐서 산산히 부서지고 마는 그 철저한 패배가 만드는 견딜 수 없는 소용돌이와 파도 부서지는 소리에는 눈 멀고 귀 멀어도 될 정도의 힘이었다.

아마도 우녀는 그런 벼랑에서의 체험으로 그의 영식(靈識)이 어느 만큼 회복되어 그의 백치 수준의 머리속을 약간 바꿔 주었는지 모른다.

"다 떠났구나!"라는 그의 한숨섞인 말 한 마디가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섬에 혼자 남은 우녀 자신을 뜻하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당장 바닷바람을 피해서 쉴 곳도 없는 이 집 없는 섬에서 현실보다는 관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뜻밖의 일이기도 하였다.

그가 중얼거린 것 "도대체 부처란 것이 뭐란 말인고"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아니고 그것에 의존한 그동안의 삶이 회한에 젖어서도 아니었다. 입에서 흘러나온 무의식적인 콧노래와 다를 바 없는 의식의 한 조각이었던 것이다.

"… 뭐란 말인고."

이 푸정이 슬쩍 내보인 중얼거림에 대해 공중에서 어떤 대구가 있었다. 우녀는 공중을 올려다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는 갈매기들도 지진을 피해 간 뒤 아직 이 섬 일대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소리는 지극히 서당 훈장 앞에서 공부한 것을 그대로 외우는 모범적인 학동(學童)의 그것과도 흡사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대구일까.

이런 대구였다.

그대가 이런 것이나 묻는 아이로 돌아갔단 말이더냐. 가련하다. … 부처는 지나간 과거생을 보고 그처럼 미래생도 보며 또한 현재세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을 다 보며… 밝은 지혜로 모든 것을 환히 알아 닦아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닦고 끊어야 할 것을 남김없이 끊었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르나니… 억겁의 세월동안 살펴보아도 즐거움은 잠시요 괴로움만 남으니 한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번뇌망상을 멀리 벗어나 뿌리째 뽑아버려 세상을 바르게 깨달은 이를 부처라 말하느니…

굳이 이 말을 따져보자면 잡아함경 제4 1백경 가운데 끼어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옛날 천축나라 기원정사의 우계(雨季)에 석가모니불이 그의 제자들과 머물러 있을 때 말 좋아하는 한 바라문이 찾아와 물었을 때의 대답이기도 하였다.

"고타마시여, 어떤 이를 부처라고 합니까? 부모가 붙여준 이름입니까? 아니면 옛날 바라문이 지어준 이름입니까?"

말하자면 이렇듯이 부처를 이름의 모양(名相)에 집착해서 묻는 상대방에게 한 권의 시로 읊어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의 대답으로 해준 것이었다.

"번뇌망상을 뿌리째 뽑아버려

세상을 바르게 깨달은 이를 부처라 하느니…"

우녀는 공중의 소리를 들었다

우녀는 더이상 공중을 올려다 보지 않았다. 그 공중이란 것도 우녀 자신의 마음이 이룬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시 공중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묻지 않았는데 절로 대구가 있었다.

공작새를 아는가? 그 새가 비록 그 모습은 화려하지만 기러기나 고니처럼 하늘을 높이 날지 못하느니라. 겉모습은 비록 잘났다 하더라도 번뇌를 끊고 공덕을 이루느니만 못하니 지금 그 수행자는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아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모든 번뇌의 결박을 벗어나 다시는 윤회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우녀는 중얼거렸다.

"나더러 들으라는 소리인데… 어찌 내가 공작새를 모르고 기러기나 고니만 알겠는가… 어찌 겉모습만 알고 본마음은 모르겠는가. 기러기도 고니도 쏘아 떨어뜨리면 죽은 짐승이요, 날지 못하는 공작새도 그 화려한 터럭을 다 뽑으니 기이한 짐승이로구나."

다시 지진의 미동이 시작되었다. 그 미진은 한 두 차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지속되는 미동이 차라리 이 세상의 무상(無常)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우녀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없이 배가 비어 있었으므로 무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무너지기 전의 아랫채 요사 후원 자리에는 물에 휩쓸려 가다가 남겨진 쌀이 몇군데 쌓여 있었다. 그것은 우녀의 약해진 시력으로 보아 소금인줄 알았다.

하지만 무욕도에서는 거무튀튀한 막소금을 썼지 그런 표백된 가는 소금을 쓴 적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쌀을 한줌 쥐어서 무심코 입안에 털어넣었다. 입안에서 위 아래의 이빨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쌀들이 씹혀서 음식이 되어갔다.

"맛이 있다!"라고 그녀는 쌀을 씹다가 중얼거렸다. 오래동안 그렇게 생식으로 살아온 습관이었으므로 우녀의 입은 아주 익숙하게 입놀림을 해냈다.

우녀는 문득 그의 발등을 내려다 보았다.

"내 발이 왜 노새 발인가(我脚何似驢脚)."

그림 · 조향숙

삼중스님이 그려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

최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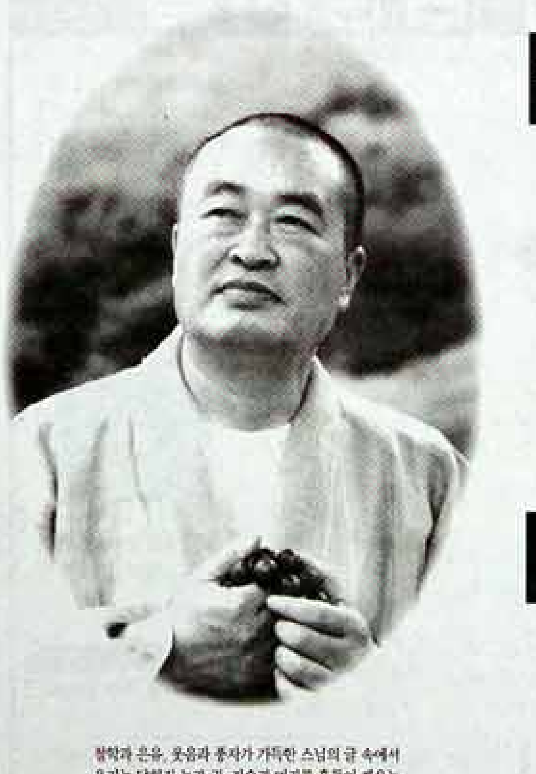
배고프면 먹고
졸리우면 자고

바르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비뚤어진 세상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삼중스님의 살아서 펄펄뛰는 선어(禪語)와 풍자!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고,
[illegible]
밝고 시원한 생물 같은 메시지!

■ 신국판 / 296면 / 값 6,500원

가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욕심에 욕심을 부려 욕심으로죽는가 하면 지식에 지식을 파다가 지식에 묻히기도 한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잠시 자신과 주변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작은 상식에 얽매였던 틀을 깨도록 문자와 언어와 형상조차 떠날 뿐인 세계로 안내하고 싶다.
- 작가의 말 -



철학과 은유, 웃음과 풍자가 가득한 스님의 글 속에서
우리는 닫혀진 눈과 귀, 가슴과 머리를 흔들어 깨우는
인자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삼중스님 에세이

15쇄

걸망에서 배운 인생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illegible]

■ 신국판 / 320면 / 값 6,000원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 철창 밖으로
띄우는 참회의 편지 최초 공개!

24쇄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2

제1부 참회의 눈물로 보낸 나날들
제2부 어머님 전상서

[illegible]
정해져 있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두 성자였습니다.

■ 신국판 / 전2권 / 각권 값 5,500원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